

인천 영종 주민 공항철도 환승 평균 2만5,000원 할인

7~8월 두 달간 11,271명 2억 8,000만원
공항철도 이용자 조례 제정 운임차별 해소

지난 7월, 8월 두 달간 공항철도를 환승 이용한 영종 주민들은 1인당 평균 2만5천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1만 2,500원을 환급받은 셈이다.

인천시는 7월, 8월 두 달간 공항철도를 이용한 영종지역 주민의 환승 할인 요금으로 11,271명에게 총 2억 8,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환

급받는 대상은 지난 7월말까지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 (<http://incheonyj.tmoney.co.kr>)에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9월 초 영종지역 거주지 인증을 마친 11,271명이다. 이들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대중교통(공항철도 및 영종지역 버스) 환승할인 요금으로 총 2억8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만5천 원(2개월 이용 분)이었으며, 공항철

도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출퇴근한 직장인(한 달 20일 출근 기준)은 버스 환승을 포함해 약 19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30대 이하가 지원대상의 54.4%를 차지했다.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사업'은 영종지역 주민이 공항철도 운서역, 영종역을 이용(경유)하고 교통카드로 지불한 요금과

수도권통합환승이 될 경우 부담할 요금 간의 차액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영종지역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운임차별을 받아왔다.

인천시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을 오픈했다.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9월 20일 현재 2만4,820명의 회원이 포털 가입을 완료했다.

김을수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주민 여러분의 의견수렴과 기관 간 합의를 거쳐 영종지역 주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최초 지원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항철도에 완전한

수도권 통합 환승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공항철도 환승할인 요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영종지역 주민들은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 (<http://incheonyj.tmoney.co.kr>)에 가입한 후, 공항철도가 포함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매 분기마다 지원 포털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분기별(3, 6, 9, 12월의 말일) 경로 환급받을 예정이다.

9월~11월 환승할인 요금은 교통 카드 데이터 정산을 거쳐 12월 말 경 지급될 예정이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bbo.com

이행숙 인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반도체 패키징 산업 전 참석

"K-반도체 패키징 메카 목표 지원"



국제PCB 및 반도체 패키징산업전 개막식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 시장은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KPCA Show 2022)'의 개막식에 참석해, "인천의 1위 수출 품목이 반도체이며,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 수출의 약 30%를 인천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K-반도체 패키징 메카를 목표로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편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사)한국PCB·반도체 패키징산업 협회(협회장 정철동)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4개국 182개사가 참여해 9월 21일 ~ 23일(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에는 양향자 국회의원(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반도체 기업 및 유관기관 대표 등 20여명의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인천에는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 세계 2, 3위 기업을 비롯해 1,20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포진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물류 등의 이점을 갖춰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bbo.com



동구 송림2동 주민자치회가 이웃 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동구 송림2동 주민자치회, 이웃 장 나눔

고추장 등 전통장 3종 세트 90세대 전달

인천 동구 송림2동 주민자치회(회장 김기운)는 지난 20일 어려운 이웃에게 정을 전하는 장(饗)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이번 '나눔과 정이 함께하는 전통장 담그기 행사'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관내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참여하여 전통장 3종 세트(고추장, 된장, 맛간장)를 직접 담가 저소득 취약계층 90세대에 전달했다.

이종구 자치기획분과위원장은 "이번 나눔 행사는 어려운 이웃을 돋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어

르신이 함께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데도 그 의의가 크다"며,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 담그기 재료는 관내 전통시장에서 주로 구입했다"고 전했다.

송림2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연 나눔 행사 지원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송림2동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강화군이 '경쟁력 있는 농·축·어업, 잘 사는 농·어촌 실현'을 위한 '농·축·수산업 발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 강화군 제공)

유천호 군수 "농어촌이 잘 사는 풍요로운 강화군"

강화군, 농축수산업 발전 정책협포장제 추가지원 등 현안 논의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는 지난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쟁력 있는 농·축·어업, 잘 사는 농·어촌 실현'을 위한 '농·축·수산업 발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이수근 강화옹진지사장을 비롯해 고석현 등 농·축·어업분야 조합장이 참석했다.

유천호 군수는 회의에 앞서 "유례 없는 쌀값 하락과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막힌 인삼 농가들이 특히 어

려움에 처해 있다"며 "청정지역인 강화도는 해풍과 터가 좋아 농특산물의 품질이 좋고 맛이 우수한 강화 농특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스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지원△수산물 유통물류비(택배비) 지원사업△폐류종폐 살포 사업△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제

가 신청△벼 적기수확 및 적온건조 기술지도 등 농·축·어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안 사업을 논의됐다.

특히, 농업인들이 자식처럼 키운 고품질의 강화섬쌀과 강화인삼 팔아주기 운동에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축·어업 조합이 함께 참여해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강화섬쌀은 청정 지역인 강화도의 풍부한 일조량 속에 미생물·마그네슘이 풍부한 토양에서 거친 해풍을 이겨내고 자라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 강화인삼은 고려인삼의 원산으로 해풍의 영향을 받는 서늘한 기후 조건과 미사질 토양에서 자라 동체에 내공이나 백이 없이 육질이 단단하고 치밀하다. 또한, 인삼 고유의 향을 오래도록 간직해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유천호 군수는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시책으로 유통 판로를 확대하고, 첨단농업 육성사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장들과 함께 농·축·어업인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농어촌이 잘 사는 풍요로운 강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bbo.com

주요 현장 추진·운영 현황 점검

시의회 건설교통위

해양박물관 등 방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임관만)는 22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현장, 월미바다열차 월미공원, 월미 음악분수대 등을 방문해 사업추진 및 운영 현황을 듣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해양항공국, 인천교통공사,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 등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해양문화·교육시설로, 월미도 갑문��리지 일대에 사업부지 2만7천601㎡, 건축연면적 1만7천318㎡, 지상 4층 규모에 총사업비 1천6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해양수산부는 건설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월미바다열차는 인천 월미도

를 순환하는 국내 최장의 도심형 관광모노레일로서 노선길이 6.1km, 교각 184주, 역사 4개로 구성돼 있으며, 인천교통공사와 자회사인 (주)인천메트로서비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차례 운행 재개 및 중단을 반복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정상 운행 중이며, 지난 8월 말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이용객은 15만2천 406명으로 하루 평균 75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이용객은 어른으로 약 55% 정도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진행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관계자들에게 인천시민을 대표해 위로와 고마움을 전한다"며 "유물 등 박물관 전시자료 수집, 박물관 운영주체 선정 및 교육·전시프로그램 등을 미리 추진해 건설 공사 완료와 동시에 박물관이 개관·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bbo.com

서구, 공무원 아동 권리 인식 개선·실천

아동 인권 감수성 이해 등 아동 권리 교육

인천 서구 아동친화도시 실무 추진단 담당 등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위한 아동 권리 교육을 20일 진 행했다고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 김보희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중요 구성원인 아동의 인권, 인권 감수성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아동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특히 서구 관계자는 "특히 이번

교육에 서구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인 결정 권한과 영향을 가지는 간부 공무원이 참여했다"며 "구 정책 전반에 아동 권리 감수성이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지역사회 내 아동 권리 인식 확산을 위해 향후 아동시설 관계자, 경찰서,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강범석 서구 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주제로 인식하고 최우선으로 아동 이익을 고려하는 행정을 추진하면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서구 모든 공직자가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편집정다정 기자 jid@hyundaiibbo.com